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주정부가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2차 접종을 50대 이상의 연령대 주민들에게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스파인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주정부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2차 부스터샷 접종시작

주정부 웹사이트의 백스파인더(Vaxfinder) 통해 예약 가능
주내 1000여 장소에서, 주당 15만명까지 접종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연방 FDA와 CDC의 50세 이상 2차 부스터샷 접종 허용방침에 따라 2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29일 50세 이상과 기저질환 보유자들의 경우 2차 부

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 식품의약국(FDA)가 첫번째 모더나 또는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한지 4개월 이 지난 50대 등에게 2차 접종을 승인함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가 발표한 2차 접종 가능자들은 다음과 같다. - 50세 이상으로 1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후 4개월이 지난 >>8면으로 계속

주정부, 2021년-2022학년도 P-EBT 학생자녀 둔 가정에 지급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로 결석한 일수별로 지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학생 자녀를 두었거나 6세 이하 데이케어 연령대 자녀를 둔 매사추세츠 가정은 자녀당또한 차례 2021년-2022년 학기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급식료, 즉 P-EBT를 받게 된다.

베이커 주정부는 30일 2021 가을학기부터 2022년 4월까지 학교 재학 연령의 자녀와 가정들에게 제공하는 팬데믹 EBT(P-EBT)를 연방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하며 지난 가을 학기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결석했던 학생들에게 급식료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전환지원부(DTA)는 475,000명의 학생들에게 2천2백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팬데믹 EBT, 즉 P-EBT는 2020년 3월 케어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무료 및 할인 급식을 받는 학생들에게 P-EBT카드를 통해 음식을 구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MOVEMENT MORTGAGE

인생 최대의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주택융자/재융자, 주택연금/투자 전문융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
최적의 이자율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Call **MIKE LEE** today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2019년 시민협회 정치 인턴 행사 모습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여름방학 정치 인턴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뉴잉글랜드 지역 차세대 한인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정치 인턴” 을 공모한다.

관심있는 차세대들은 4월 18일(월요일 자정)까지 추천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시민협회에 지원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정보는 newenglandkacl@gmail.com에 문의할 수 있다.

선발된 인턴은 미셸 우 보스톤시장,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소니아장-디에즈 주-상원의원, 태키 찬 주하원의원, 투누엔 우스터 시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 보스톤 시장으로 당선된 미셸 우 시장은 과거 토마스 메니노 보스톤 시장 시절 인턴을 경험하면서 미래 정치인의 꿈을 싹피웠다.

한편 선발된 대학생 인턴에게는 시민협회가 \$2,000, 그리고 고등학생 \$500 장학금을 수여한다. 인턴십 시작과 종료일은 시의원과 주 하원의원 사무실과 논의하여 각 인턴의 개인 상황에 따라 정한다. 인턴십 종료 후 각 인턴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인턴십 에세이가 시민협회 저널에 게재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시민협회 홈페이지(www.kacl-ne.org)를 통해 18일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민협회는 5월 1일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고 5월 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는 허훈 시민협회 부회장 (413-204-9569), 소피 박 사무총장 (newenglandkacl@gmail.com) 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대 김은미 총장 4월 하버드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총장이 보스톤지역을 4월 방문해 하버드 대학과 브라운대학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모두 온라인 줌으로 개최된다. 4월 21일 하버드 대학에서는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in the Era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Pandemic” 란 주제로 강연하며, 4월 25일 브라운 대학에서는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COVID and Digital Transformation” 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여대 17대 총장으로 작년 3월 임명됐다. 김 총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이화의료원 글로벌소녀 건강연구원 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2011년-2012년)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2012년 세계개발 원조 총회(HLF-4)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으며, 2019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보고서 작성을 위한 UN이 지정한 저자 그룹 15인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2021년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시아재단에서 수여하는 ‘2021 창린 티엔 리더십상 (Chang-Lin Tien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을 받았다 이화여대 보스톤 동창회는 4월 23일 김은미 총장님과 오찬을 나눌 계획이며 만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동창들은 김지영회장 (603-674-3415)에게 연락하면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시아재단에서 수여하는 ‘2021 창린 티엔 리더십상 (Chang-Lin Tien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을 받았다 이화여대 보스톤 동창회는 4월 23일 김은미 총장님과 오찬을 나눌 계획이며 만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동창들은 김지영회장 (603-674-3415)에게 연락하면 된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청년모임 제2회 아우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차세대-청년 모임인 관악회는 4/23일 토요일 12시에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파크(485 Arsenal

St, Watertown) 에서 제2회 바베큐 파티를 개최한다. 회비는 없으며 참가대상은 90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동문 및 가족과 친지로, 참가를 원하는 동문

은 관악회장 신진우 (sjinu37@snu.ac.kr) 동문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st Soup in the City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현악기의 아름다움과 조화가 돋보인 보스톤 심포니 단원들의 실내악 연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이사장 정정숙, 회장 김병국)가
 주최한 <봄 실내악 콘서트>가 지
 난 3월 26일(토)에 메드포드에 위
 치한 템스 대학교의 그라노프 뮤
 직 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들어 예
 술협회가 개최한 첫 번째 대면 행
 사였던 이번 연주회에는 보스톤
 심포니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김과 첼라 피에코브스키, 비
 올리스트 대니얼 겐츠, 첼리스트
 올리버 알도르트가 출연하여 다
 양한 조합의 현악 앙상블로 관객
 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
 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
 성기 씨의 <골목길(2017)>이 연주
 되었다. 이 곡은 20세기의 가장 한
 국적인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
 는 박수근(1914~1965)의 그림 곡
 목길을 주제로 창작된 것이다. 미
 술 작품을 주제로 만들어진 음악
 을 초연하는 '화음 프로젝트'
 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세 악기가 서정적인 단조 분위기
 의 선율과 화음을 펼쳐며 소박한

아름다움과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체코 출신
 으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작곡가 마르티누(1890~1959)의 <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 개
 의 마드리갈>이 연주되었다. 윌라
 피에코브스키와 대니얼 겐츠는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듀엣 곡
 을 성숙한 기교와 표현으로 다채
 롭게 보여주었다.

마지막 무대는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 곡의 하나인 <현악
 사중주 12번, Op. 127>이었다. 제1
 바이올린의 리사 김과 첼로의 올
 리버 알도르트가 풍성한 소리와
 에너지로 서로를 이끌고 받치면
 서 외성을 주도하고, 제2바이올린
 과 비올라가 섬세하고 내밀하게
 내성을 채워주어 전체적으로 멋
 진 앙상블이 이루어졌다. 세계적
 인 오케스트라의 단원답게 각자
 의 파트를 능숙하고도 충실하게
 연주했으며, 음악의 전개에 따라
 함께 강약과 흐름을 조절하는 호
 흡이 원숙하고도 자연스러웠다.

이 날 연주장을 찾은 관객들은
 오래간만에 들은 대면 연주가 너



무 감동적이었으며, 아름다운 현
 악기 소리를 다양한 조합으로 들
 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과 훌륭
 한 연주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미예술협회 측은 아직
 관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

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가족 단위
 로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분들이 다수 있어서 보람 있었고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무료입
 장 혜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 모금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
 톤 한인교회는 4월 2일 일요일 저녁 7시 30
 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모금 음
 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오스트리아
 의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가 1899년 작
 곡한 현악 6중주곡 정화된 밤(Transfig-
 ured Night)과 베르디, 슈베르트, 도니제
 티의 작품들이 연주된다.

온라인 참여 등은 보스톤한인교회 웹사
 이트(www.kcboston.org)를 방문해 알아
 볼 수 있다. 이메일 문의는
 kcbweb2@gmail.com로 가능하다.

보스톤 한인교회의 주소는 32 Harvard
 St, Brookline, MA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하버드 법대 탑3에서도 밀려

경영대는 MIT와 공동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법대가 주요 법학대학원 순위에서 4위로 밀려 컬럼비아 법대와 동률을 이뤘다.

NS News의 2023 법학대학원 순위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예일과 스탠포드 법대가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시카고 법대가 2위를 차지했다. 보스톤대학(BU) 법대는 밴더빌트, 텍사스대학과 공동 17위, 보스톤칼리지는 37위, 노스이스턴대학은 73위에 올랐다.

US뉴스는 매년 각 대학의 법대, 의대, 경영대, 교육대, 간호대, 공대,

과학대 그리고 기타 대학원의 순위를 발표해왔다.

US뉴스는 2년 연속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평균 부채를 고려해 순위를 산정했으며 동시 법대졸업생들의 부채비율도 고려했다. 또한 모든 주에서 첫 변호사시험합격률 등을 순위평가에 포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약 200여 법대를 상대로 평가해서 순위를 산정했다.

한편, 하버드의 경영대와 MIT 슬로언 경영대는 유에스뉴스 평가에서 2년 연속 공동 5위에 선정됐다. 보스톤칼리지는 텍사스 A&M 등과 41위, 보스톤대학 퀘스트롬대학원은 47위에 올랐다.

MIT 입학요강에 SAT, ACT 다시 필수화

SAT, ACT만큼 학업성취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은 대입요강에서 SAT 또는 ACT점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스투 시밀 MIT 입학처장은 온라인에 올린 글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늠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SAT라면서 다시 SAT를 입학요강에서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MIT는 2022학년도 대입요강에서 SAT, ACT를 필수화했다.

시밀 처장은 “우리의 연구는 이 같은 시험들이 학업 준비능력을 예측해내는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교육에 있어 수학의 중심성 척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MIT는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다른 여러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SAT, ACT점수를 선발요강에서 제외했었다. 보스톤에서는 뱁슨, 노스이스턴, 하버드, 텀스 그리고

웰슬리 대학 등도 SAT를 면제했다.

미국내 많은 대학들은 현재 SAT를 대학 입시요강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팬데믹 당시 교육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튜터를 고용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며 특히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밀 처장은 MIT가 SAT, ACT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예측하는 가능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학은 전공에 상관없이 MIT 교육의 기초인데 수학 분야의 SAT에서 학업 능력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표준화력시험도 있지만 SAT 또는 ACT보다 더욱 더 특정사회경제학 그룹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1년 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매사추세츠 하수도 바이러스 수치 다시 증가

감염도 증가세, 예전 같은 폭등세는 없을 듯
한인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관심 기울여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2가 점차 확산함에 따라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두가지 지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인들은 조금더 방역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MWRA)의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동부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개체수가 이달 초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소폭 증가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도 지난 2주동안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같은 두가지 지수는 올해 초의 폭증에 비하면 아주 소폭의 증가세라는 것이 보건부의 발표다.

전문가들과 관계당국은 항상 미국의 감염 급증의 가능자 역할을 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럽의 폭증은 방역조치의 완화와 더 감염력이 센 BA2의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BA2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는 50%를 넘어섰다.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태라서 미국도 유럽과 같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유럽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여서 BA2에 대한 면역력이 어느 정도 갖췄기에 유럽과 같은 폭등세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날씨가 점차 따뜻해 지는 상황에 BA2가 미국에서 확산됐기 때문에 겨울철처럼 확산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버드 TH첸 공중보건대학원의 감염 및 면역학과 연구펠로우인 스티븐 키슬러는 “다음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비교적 낮은 봄철과 맞물려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일부 케이스 증가가 이어질 것이지만 큰 폭증세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튜 팩스 보스톤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이번



오미크론 하위변이 BA2의 확산을 막아 큰 폭증세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의하되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그는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 급증세 동안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고 위험 이벤트는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아닐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보스톤 하버 MWRA 디어아일랜드 하수도처리시설에서 측정된 바이러스 수치는 지난 25일 기준 보스톤 남부의 경우 7일 평균 147 RNA였으며 이는 지난 3월 1일 92 RNA보다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1월 3일의 경우 11,446 RNA에 달한 것에 비하면 극히 낮은 상태다.

보스톤 북부의 경우 7일 평균 173 RNA로 3월 9일 101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지난 1월 5일 8,644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hsb@bostonkorea.com



주정부, 2021년-2022학년도 P-EBT 학생자녀 둔 가정에 지급

▶▶1면에 이어서

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미구제 계획(ARP)에 따라 지급이 연장됐다. 올해의 P-EBT는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결석한 일수에 의해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자격이 되는 가정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 관련 결석일수를 계산해 5월 25일 지급된다. 5월과 6월의 결석 일수는 각 다음달 달 25일에 지급된다.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금액의 급식료를 받는다.

1-5일 결석: 학생당 월 \$21


6-15 결석: 학생당 월 \$71

16일 이상 결석: 학생당 월 \$128

급식료는 기존의 P-EBT 카드에 적립된다. 새로 자격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카드가 배송되며, 카드를 잃어버린 가정의 경우 DTA(<https://dtaconnect.eohhs.mass.gov/>) 새로운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주정부는 6세 이하 차일드케어 학생들에 대한 P-EBT 지급과 관련하여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국학교 교사사은회 및 연수회 성황리에 마쳐

조현용 경희대 교수 주제강연 메인 한글학교 개교 40주년 상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는 3월 27일 전반기 정기연수회 및 사은회를 개최해 조현용 교수의 강연과 메인한글학교 40주년 수상, 장기근속 교사들을 표창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메인 한글학교,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톤 천주교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와 우스터 한국학교 등 11개 학교 소속 8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조현용 교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선미 총회장, 최근 새로 부임한 보스턴 총영사관 홍순복 부총영사, 박육현 교육영사 및 협의회 이사진도 참석했다.

1부 정기연수회는 김소희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총무는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단체의 후원과 격려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다고 감사사를 전하고 “교사들에게 2세들의 한글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의의를 알기 쉽게 제시해 주며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며 주제강연을 맡은 경희대 조현용 교수를 소개했다. 조현용 교수는 ‘우리말 소망’, ‘뭉치면 뭉치면’ 등을 출간했으며

매주 2편의 집필활동, 사물놀이 판소리 활동까지 하고 있다.

남일 회장은 참가한 선생님들과 외부 귀빈을 소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온라인 행사가 되고 후반기 교사연수회는 모두 함께 반갑게 만나 담소도 나누며 대면 연수회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홍순복 부총영사는 “영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아들을 주말마다 한국학교에 보낸 덕분에 아들이 지금도 한글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한국학교의 역할과 영향,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이 얼마나 중요인지 잘 알고 있다” 고 말하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경지하고 한국어, 한국의 얼을 잊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조현용 교수는 “2008년 이후 오래간만에 보스턴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갑다. ‘반갑다’ 는 뜻은 ‘얼굴에 빛이 난다’ 는 의미를 갖는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우연찮게 특별히 만나게 된 것이고 이처럼 반가운 현장에 함께 하게 되니 더욱 기쁘다.” 고 강연을 시작했다.

조 교수는 특히 “언어교육은 ‘소리’ 를 전하는 것이 아닌 ‘말’ 을 가르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말은 싸우지 말자고 배우는 것이 고맙고 상처주지 않고 말이 가시가 되지 않고 꽃이 되는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학교 선생님들이다.” 고 말했다.

또한, 조현용 교수는 “2세들에 대한 쉽지 않은 한글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하면서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먼저 교사들의 생각과 지도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래야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말’ 을 전달하게 된다고 힘주어 전했다.

3부 교사 사은회는 김성희, 박현아 간사의 공동 사회로 이어졌다. 오인식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임원단 및 참가한 교사와 오늘 상을 받는 선생님들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고, 김선미 총회장은 개교 40주년

을 맞은 메인한글학교에 대한 표창을 김선미 총회장이 시상했고 직전 이현경 회장과 직전 윤미아 이사장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장기근속교사상은 5년 근속상은 양소영(내슈아 한마음), 장승은 김경렬(보스톤천주교), 지미경(우스터), 강민희 김미순 김인경 이주미(이상 애머스트), 한향화(메인) 교사가 수상했고 10년 근속상은 김진아 이승현 이정설 홍순주(이상 뉴잉글랜드), 김하나(북부보스톤) 교사가, 15년 근속표창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희현 교사가 수상했다.

이사회 오인식 이사장의 후원으로 준비된 신설 우수배우자상은 김소희 김혜련 박미희 박현아 이현경 교사(이상 뉴잉글랜드), 나미현(내슈아한마음), 김성희(보스턴장로), 권인호(보스톤천주교), 명정호(북

부보스톤), 김미순(애머스트) 교사의 배우자가 영예의 1회 수상자로 상을 받았다.

전반기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선미 총회장은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2년도 낙스 학술대회에 2세 교육에 큰 도움이 될 다양하고 유용한 강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교장단-임원 연석회를 갖고 5월 첫 주 개최 예정인 2022 NE지역 글짓기 & 손글씨 자랑대회, 나의꿈 말하기대회 지역 대표 선발대회, 제 2회 동해 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 등 금년도 협의회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제주43희생자 추념식 미국에서 열려

보스턴, 뉴욕에서 각각 열려.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도 함께 추모
하버드행사 교수 및 석박사들 초청... 학계에 제주43항쟁 연구 촉구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주43 제74주년을 맞아 미국에서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공식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으로 현지 시간 4월 1일과 9일 양일간 보스턴, 뉴욕에서 각각 영어와 한국어 행사로 개최된다.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본부가 있는 보스턴에서는 하버드 대학 내 패컬티 클럽에서 개최된다. 하버드 대학 데이비드 맥켄 교수와 에드워드 베이커 교수, 터프츠 대학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 월든 코리아 양수연 회장이 메인 스피커로 나서 제주43 항쟁의 비극적 역사를 되새긴다.

재미유족회는 학술 문화 플랫폼인 '월든 코리아'를 통해 제주43을 연구하는 학자 양성, 미국 대중을 상대로 한 <당신이 듣지 못한 역사 이야기 (History You Never Heard)> 시리즈 강연 등을 펼쳐왔다. 이날 하버드 행사에도 국제정치사회를 연구하는 석, 박사 미국 학생들을 초청

하여 제주43의 실상을 알리고 연구를 독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도 함께 추모하며 한국의 각계 인사들이 보내온 추모 영상들도 선보인다. 하버드 대학 철학 박사 도울 김용옥 선생의 특별 추모 영상을 비롯 월든 코리아 고문인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제주43의 특별한 세계사적 위상에 대해 설명한다. 제주43유족회 오임중 회장,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일본43유족회 오광현 회장, 허영선 43연구소 소장(추모시-법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주43희생자추념 행사를 영상으로 함께 한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의 두 자녀이자 하버드 대학과 명문 음대인 뉴잉글랜드 컨소버토리를 동시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던 하버드대 한인 학생 애나 최(오보에), 앤서니 최(첼로)가 특별 추모 무대를 마련한다.

4월 9일 뉴욕 베이사이드의 뉴욕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제주43희생자

추모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제주43항쟁을 다룬 영화 오명 감독의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을 상영하며 2부에서는 재미유족회 양수연 회장의 강연, 추모시 낭독, 무용가 강은주 씨의 살풀이 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4월 한달간 전미주를 대상으로 <지슬> 영화 감상문 대회도 이어진다.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74주년 재미제주43희생자추모식은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 국제연대포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뉴욕 아카데미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코비드-19상황으로 사전 신청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온라인 (Zoom)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줍 접속 주소 등 자세한 안내는 월든 코리아 홈페이지 (www.walden-korea.org, 영문),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홈페이지 (www.43jeju.com)을 보면 되며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BU <쟁가 빌딩> 보스턴 서쪽 랜드마크로

특이한 디자인 19층 보스턴 최대의 친환경 빌딩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쟁가 게임 같기도 하고 책이 지그재그로 쌓여있는 모습 같기도 한 디자인의 BU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이 보스턴 서쪽 하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이 빌딩은 35만 스퀘어피트의 BU 컴퓨터사이언스 스테이타센터 (Boston University's Center for Computing & Data Sciences) 빌딩이다.

서쪽건설이 3억5백만달러의 예산으로 짓고 있는 이 빌딩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구열 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을 모두 해결하는 보스턴 최대의 친환경 빌딩이다.

이 빌딩의 건축디자인은 토론 토에 본부를 둔 KPMB 건축사가 디자인한 것이다. 19층인 이 빌딩은 강의실과 컴퓨터 실험실 그리고 미팅공간 사무실로 이용된다. 그러나 최고층 2개층은 기계시스템이 들어선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보스톤 시의회 개인주택서 항의시위 시간 제한 가결

미셸 우 시장 자택에서 시위하던 시위대에 철폐 항의 시위대 시의회 회의중 강력 반발, 강제 퇴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개인 주택에서의 각종 시위 시간을 제한하는 시위 제한 법안을 9대 4로 통과시켰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당선 후 몇 달간 새벽부터 집 앞 항의 시위에 시달리자 이 같은 제한 법안을 상정했었다.

미셸 우 시장은 이 법안을 조만간 서명해 보스톤 시의 공식법령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 주택에서의 모든 항의 시위를 밤 9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보스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하에서는 첫번째 시위 위반시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2번째는 \$150, 세번째 위반시에는 \$300의 벌금이 부과된다. 12개월 후

이 같은 벌금체계는 재조정된다. 이번 법안은 3월까지 발효되지 않으며 지나치는 시위대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개인 주택에서 항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미셸 우 시장이 제안하면서 강한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1차 수정헌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시의회 회의는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인해 두차례나 중단됐다. 에드 플린 시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경찰은 항의자들을 퇴장시켰다. 시위대 중의 한사람은 위험적이라고 성토했으며 또 퇴장당한 다른사람은 이 법안은 우 시장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리쳤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프랭크 베이커 시의원은 이 법안이 우 시장 한 사람을 위해 직접적으로 대응

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폄하했다. 베이커 외 에린 매피, 줄리아 메이저, 켄드라 라라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우 시장은 새로운 법안이 “시위대들의 권한을 침해함에 없이 평화와 고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카도 아로요 의원은 새벽 7시부터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시위는 시위가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지적하고 “표적화된 개인 주택 시위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문화”라고 말했다.

타니아 퍼넨디스 앤더슨 의원은 이 법안은 옳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한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결국 모두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가 아니라 괴롭힘이고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우스보스턴 자택 밖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에드 플린 시장은 “개인 주택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2차 부스터샷 접종 시작

▶▶1면에 이어서
경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1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경우 -또한 18세 이상으로 1차 접종과 부스터 접종을 모두 존슨앤존슨으로 맞았으며 부스터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다.

부스터샷은 주내 약 1000여개 장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주정부는 매주 약 15만명에 달하는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래리 매도프 주 보건부 의뢰 리더는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접종은 코로나 감염과 심각한 질병, 사망을 막기 위해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매도프 박사는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스터샷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 자신의 1차진료의와 상의하라”고 권했다.

백신접종이 가능한 한인들은 vaxfinder.mass.gov에 접속해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인

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30분부터 6시까지, 토, 일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211으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다. 211에서는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스터 백신 접종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 보건부의 권고사항이다. 또한 부스터샷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는 현재 5세 이상의 인구 중 8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이중 절반은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부스터 접종율에 있어 현재 미국내 5위를 달리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목이 잘 안 돌아갈 때 + 거북목 일자목까지 해결해주는 목 어깨 스트레칭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가 목 인데요, 더구나 현대인들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통증, 목디스크, 거북목 일자목, 목통증으로 인한 어깨결림 등은 매우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전날 밤에 잠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잤거나,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난 다음날에 목이 빠근하고 심지어 목이 잘 안 돌아가거나 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럴 때 해주면 특효약 같은 스트레칭들만 모아봤습니다.

아래 영상을 찾아 보시면서 따라하면 더 쉬워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목어깨 스트레칭 끝판왕 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앞 뒷목 스트레칭

1단계 두손을 깎지껴 사진과 같이 턱을 가슴 쪽으로 내려 뒷목을 늘려줍니다.

2단계 천천히 턱을 들어 안전하게 손으로 목 뒷면을 받친 상태에서 앞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 3단계 목의 긴장감을 최대한 풀고 깊게 호흡 하며 두 동작을 이어나갑니다.

주의! 목이 많이 불편하신분들은 꼭 손으로 목 뒷면을 받치고 진행하고 조금씩 좋아지면 머리 뒷면에 손을 대고 시도합니다.

2. 옆목, 승모근 스트레칭

1단계 사진과 같이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지긋이 누르며 목의 측면을 길게 늘려줍니다.

2단계 이번엔 턱을 가슴쪽으로 내려 시선을



저드랑이쪽을 바라봅니다.

3단계 손은 허벅지나 등 뒤에 가져가 목 뒤에 빠근한 승모근을 시원하게 스트레칭합니다.

주의! 턱을 가슴쪽으로 내릴때도 척추는 곧게 펴주는 것 잊지 마세요

3. 독수리 스트레칭

1단계 두다리를 앞으로 펴고 오른팔을 왼팔 위에 올려 한번 혹은 두번 교차합니다.

2단계 두 팔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가



슴을 앞으로 보내 상체를 숙입니다.

3단계 다리 뒤가 많이 당긴다면 사진처럼 무릎을 접어 주면 됩니다. 단 최대한 허리와 어깨의 긴장감을 풀고 진행해주세요

주의! 어깨가 아프다면 손을 교차하지 말고 어깨위에 올려놓아도 상관 없습니다.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꿈의 집을 Compass Coming Soon 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mpass.com에서는 Compass Coming Soon을 통하여 마켓에 곧 나올 매물들의 정보를 미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당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들은 미리 선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ompass Coming Soon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atch the first glim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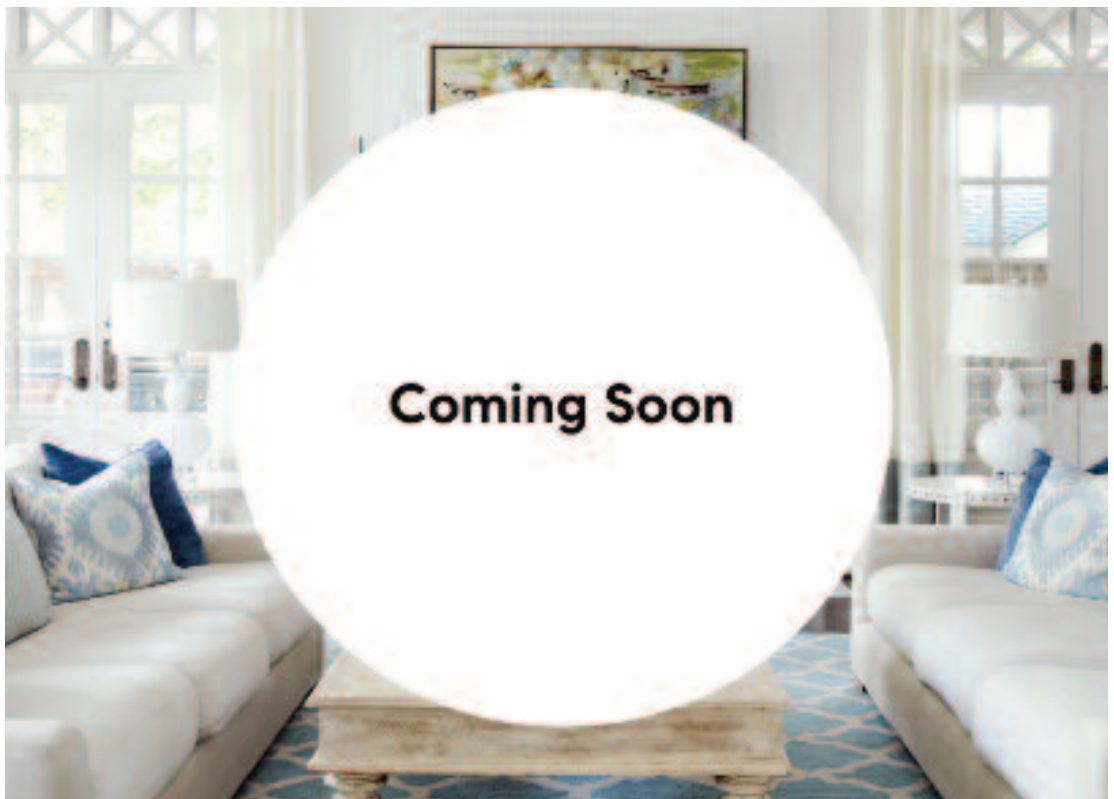
Compass Coming Soon 목록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ompass Coming Soon 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구매자보다 먼저 검색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e the full market

Compass Coming Soon 목록은 한곳 Compass.com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당사 사이트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Streamline your search

Compass.com의 저장된 검색을 사용하여 꿈의 집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선호하는 목록 기준을 쉽게 설정하고 새로운 Compass Coming Soon 목록이 게시될 때마다 알림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Compass 어카운트 셋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
COMING SOON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보스톤 배경의 감동 영화 '코다' 오스카 작품상

글러스터와 버클리 배경으로 찍은 보스톤 영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은 저예산 독립 영화인 '코다(CODA)'에게 돌아갔다. 이 영화는 독립 영화일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란 사회적 소수자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스톤이 영화의 주무대란 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한다.

코다는 Child Of Deaf Adults, 즉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비장애인 자녀를 일컫는다. 영화 코다는 청각장애인 집안에서 태어난 장애인이 아닌 딸이 합창부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쓴다.

이 영화는 27일 밤 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조연배우상, 각색상, 작품상 등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조연배우상을 수상한 커처는 아카데미 최초의 청각 장애인 배우였다. 또한 극장에서 배포되지 않고 애플 티비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된 영화에 주어진 최초의 작품상이기도 하다. 각색상을 수상한 시안 헤더는

케임브리지 태생이며 어린 시절을 글러스터에서 보냈다.

청각장애인인 딸의 아버지를 그리기 위해 영화제작진은 글러스터의 어부인 폴 비탈리씨의 배 안젤라 로즈(Angela Rose)를 빌렸다. 이 배는 비탈리씨가 주로 혼자 타는 배였으나 영화 촬영시에는 무려 35명의 배우와 촬영진이 이 배에 모두 올라탄 경우도 있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2019년 글러스터에서 촬영된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일부 매사추세츠 제작진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바(Bar)인 프래티스(Prattys)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프래티스를 운영하는 닉 프렛씨는 "촬영스텝은 단 한달 정도만 이곳에 머물렀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기쁘다. 글러스터는 미국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통적인 느낌을 가진 곳이다." 라고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은 저예산 독립 영화인 '코다(CODA)'에게 돌아갔다

이 영화는 청각장애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지만 지금껏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부들의 생생한 삶의 측면도 보여줬다는 것이 배의 주인공 비탈리씨의 생각이다. "일반 영화에서는 배에서 주로 술취하는 장면만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 그는 전

했다. 영화의 주인공 루비 로씨(에밀라 존스역)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 버클리 음대도 영화에 등장한다. 아카펠라 그룹인 피티 슬랩드(Pitch Slapped)는 영화의 합창단 장면에도 참여했고 사운드트랙에도 참여했다.

저예산 독립영화인 이 영화는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이다. 특히 우리에게 낯익은 글러스터와 버클리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더 친숙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1차포럼

4차산업과 블록체인

부제 WEB3.0 시대와 IPFS

2022년 4월 5(화) 1차강의 오후 2시
2차강의 오후 7시
참가비 FREE

Four Points by Sheraton Boston Newton
32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
강사 윤현석 대표(도서출판 채움박스)

모집인원 / 각 차시별 선착순 15명, 아래 연락처로 사전등록 필수

주최

ANT Club

후원

Henry, Max Park, 황춘복

행사문의

대표 이준균 (617) 543-5728, filecoin52@gmail.com



조 바이든 대통령

유가 잡으려 6개월간 하루 100만배럴 비축유 방출... 사상 최대

미국내 원유 생산 늘리기 위해 유전 놀리는 업체엔 과태료 부과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이다.

또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유전을 놀리는 석유 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일부 필수 광물 증산에는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조달법(DPA)을 적용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면서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인 1일당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까지 가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내 원유 시추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

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천200만 에이커의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천 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밑거름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DPA를 발동, 해당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

다.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백악관은 향후 DPA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 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의료물자 공급 확대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연준이 참고하는 美물가지표 6.4% ↑ ...또 40년만에 최대폭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또다시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을 올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4% 상승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6.25% ↑)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1982년 1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라고 CNBC방송과마켓위치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결과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5.4% 올라 198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PCE 지수가 0.6%, 근원 PCE 지수가 0.4% 각각 상승했다.

특히 근원 PCE 지수는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번에 금리를 0.5%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매과(통화긴축 선호)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번 결과가 물가상승 압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연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다.

이달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한 연준은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0.5%포인트 인상이라는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경고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기침체 유발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firstcircle@yna.co.kr

좋은사람들
www.journev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하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전쟁에 러시아인 '엑소더스'... "암울한 미래 못견뎌"

이민 등 검색 횟수 폭증... "확 줄어든 항공편 외 선택지도 별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러시아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Как уехать из России?)

미국 CNN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의 정치 체제에 실망하고 암울한 미래에 희망을 잃은 러시아인들이 자국을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 이용자들이 찾은 검색어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이 문장을 검색한 건수가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초 러시아에서 '이민'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량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달 중순 대비 4배로 뛰었다.

'여행 비자' 관련 검색량은 2배로, '정치적 망명'의 경우 5배가 넘게 치솟았다.

CNN은 이런 데이터와 항공 운행 기록,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인의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을 탄압하고 이웃 국가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불안한 행보와 이에 따른 국제적 고립 등 어두워진 미래를 견딜 수 없는 러시아인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주·터키·이스라엘·세르비아·아르메니아·조지아가 주요 목적지로 거론됐다고 CNN은 전했다.

이 가운데 조지아는 이민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러시아 국적자는 비자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최근 러시아인의 입국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지아 내무부에 따르면 개전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러시아인 3만4천명이 들어오고 1만7천800명이 나갔다. 총 1만2천600명 가량이 순수입된 셈인데,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14배나 많다.

CNN은 비행기 항로 추적사이트 '플라이트트레이더24' 자료를 분석해 최근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편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하루에만 아르메니아행 운항이 34회나 있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최근 카자흐스탄이나 이스라엘행 비행편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국행 행렬은 개전 이후 현 정권하에서는 국가 전망 자체가 비관적이라는 판단이 국민 사이에서 확산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조지아 내 러시아 관련 비영리단체 '자유러시아재단' 수장 예고르 쿠흘테프는 특히 인권 운동가나 정치권 인사들이 현재 신변 위협을 느끼고 탈출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카네기모스크바센터의 선임연구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이런 정치적 압박 외에 러시아사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항의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체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비정부기구(NGO) 'OVD-인포'를 인용해 수도 모스크바 등 러시아 내 51개 도시에서 약 1천400명의 반전 시위대가 이날 체포됐다고 전했다.

회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보거나 자식이 징집될 것으로 우려하는 가정도 이주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반전 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 베로니카(가명)도 이런 이유로 '탈출'을 결심했다.

그는 시위 참가 후 경찰이 시베리아에 있는 부모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다고 전하고 관영 언론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다수 국민의 모습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베로니카처럼 탈출을 원하는 러시아인에게는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침공 이후 각국이 러시아 노선을

막았기 때문이다. 개전 후 며칠도 안 돼 영국, 독일, 핀란드 등 37개국 항공사가 러시아 노선 운항을 제한했다고 CNN은 전했다.

실제로 플라이트트레이더24에 따르면 전쟁 전 210개가 넘는 항공사가 러시아를 오갔지만 이달 초에는 그 수가 90개 미만까지 줄었다.

베로니카는 친구와 함께 외국행 비행편에 벌써 2천500달러(약 300만원)를 썼지만 계속 결항됐고 이젠 환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2020년 3월 30일부터 육상 국경을 전면 폐쇄해 국제선 항공편을 통해서

만 제한된 통행을 허용해왔다.

30일부터 카자흐스탄과 육로 통행이 허용되긴 했으나 아직 여러 국경이 잠겨 있어 비행편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이 어려운 실정이다.

베로니카는 "지금 러시아를 떠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비행기표가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 두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CNN은 "현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외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앞으로 수개월, 수년간 러시아 사회에서 변화가 스며들기는 어렵게 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pual07@yna.co.kr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알박기·특활비' 신규권력 충돌 전방위 확산...또 전면전 가나

"상춘재 매화가 지기도 전에..." 봉합국면 같았던 文-尹 양측, 다시 날선 대립, 인수위 "대우조선 文동생 동창 '알박기' 몰염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박 경준 기자 =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규(新舊) 권력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현 정부를 강력 비판하자, 청와대는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을 들인 것인가"라고 역공을 하는 등 인사 문제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나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등 대립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불과 사흘 전인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대화를 하며 "아름답다"고 입을 모으면서 협력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그 매화가 지기도 전에 양측은 "몰염치", "눈독" 등 서로를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갈등 재점화 조짐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의 등 정권 이양작업에까지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끝까지 않은 '알박기' 공방...대우조선 인사 문제 다시 감사원으로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이후 양측이 인사 문제를 이철희 정무수석-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의 실무협약에 맡길 때만 해도 신규 권력의 핵심 충돌요인이었던 임기말 인사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대표 선임 문제가 부상하면 서 양측은 다시금 이 문제로 격한 공

방을 벌였다. 우선 윤 당선인 측이 이번 인사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포문을 열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원 부대변인은 오후에도 브리핑에 나서서 "해당 인물과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오비이락'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인사"라며 "비상식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선을 중단해달라고 2월부터 요청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두 차례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런 명백한 요청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다.

특히 원 부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곧바로 반발했다. 박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결국 윤 당선인 측이 대표로 선임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하고 싶은 '적절한 인사'가 따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표가 선임되자 인수위가 이를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해 청와대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인수위 원 부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 "또 하나의 내로남불" 등 격양된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청와대 신 부대변인 역시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인수위가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대변인이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부대변인이 나선 것 역시 인수위 측에서 수석부대변인이 브리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격'을 맞추며 신경전을 벌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옷값·특활비 싸움까지 맞물려...국힘 "민망하다" vs 靑 "해도해도 너무해"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에는 최근 논란이 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및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여사가 의상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면서 여기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겨냥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벌어진 김 여사의 옷값 논란,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거론하며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란 판결에 왜 불

복했는지, 국의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은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이런 공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보도도 있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상황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 1st - APR. 7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FOOLED YA! KOREAN HOTDOG CAKES

THESE LOOK SO REAL, YOU CAN PROBABLY TASTE IT! KOREAN HOTDOGS TAKE ON A NEW LOOK AND TASTE FOR APRIL FOOL'S DAY. IT'S SOFTER, SWEETER BUT DEFINITELY STILL A TREAT!

만우절에 모두를 깜짝 속일 핫도그 모양의 케이크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9 CNT/BOX \$34.99</p>	<p>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 사과 PREMIUM QUALITY/LB \$1.69</p>	<p>House Cucumber 하우스 오이 EA \$0.99</p>	<p>Fresh Garlic 흰마늘 팩 5 PCS/PKG \$1.79</p>
<p>Stem Tomato 스텝 토마토 LB \$1.49</p>	<p>MARATHON Ataulfo Mango 마라톤 아틀포 망고 BOX \$14.99</p>	<p>Kabocha 단호박 LB \$0.9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eef Heel Meat 생소 사태살 LB \$8.99</p>	<p>Fresh Pork Single Belly 생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p>
<p>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다리 LB \$1.49</p>	<p>Frozen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SLICED/LB \$6.99</p>
<p>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SLICED/LB \$8.99</p>	<p>Frozen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냉동 일찬순대 1.5 LB/PKG \$8.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TONGTONGBAY Frozen Half Cut Crab 통통배 냉동 절단꽃게 3 L SIZE 1.5 LB/PKG \$8.99</p>	<p>TONGTONGBAY Frozen Yellow Croaker 통통배 냉동 참조기 300-400 SIZE/LB \$5.99</p>
<p>TONGTONGBAY Frozen Head-on Shrimp 냉동 머리새우 30-40 SIZE/LB \$5.99</p>	<p>SHINWHA Roasted Bartail Flathead Fillet 신화 구운 양태포채 3.52 OZ X 2 PKG \$8.99</p>
<p>Frozen Scampi Shrimp 냉동 스크램피 새우 11-15 SIZE/LB \$9.99</p>	<p>Fresh Striped Bass 양식 농어 FARM RAISED/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4.99</p>	<p>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p>
<p>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 OZ X 16 EA/BOX \$13.99</p>	<p>SUNGGYUNG FOOD Pepper Chip 성경김 고추부각 2.12 OZ 2\$5</p>

<p>CHUNGJO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4.99</p>	<p>KYONGBUK Roasted Seaweed 경북 생 곰창 재래김 4.96 OZ 50 PCS/PKG \$10.99</p>	<p>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 \$7.99</p>	<p>HANSANG Frozen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동우 얼짱 주꾸미 1.43 LB \$16.99</p>	<p>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p>
<p>CHOUNG SOO Oriental Style Noodle 청수 물냉면 (건면) 1.58 LB/PKG \$3.99</p>	<p>Q1 Homemade Sweet Korean Pan Cake Mix 큐원 홈메이드 찹호떡 믹스 ORIGINAL 19.4 OZ \$3.99</p>	<p>DONGWON Canned Tuna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LIGHT STANDARD 5.29 OZ X 4 CANS /PKG \$8.99</p>	<p>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p>	<p>ORION Turtle Chips Corn Soup Flavor 오리온 꼬북칩 콘스프맛 5.6 OZ \$2.99</p>
<p>BINGGRAE Samanco Ice Cream 빙그레 사만코 5.07 FL OZ X 4 EA/PKG \$4.99</p>	<p>KWANGDONG Ssangwha Gold Drink 광동 쌍화골드 3.38 FL OZ X 10 BTLs /BOX \$5.99</p>	<p>SURLASANG Wok Pan 수라상 공중팬 \$27.99 32 CM /EA \$19.99</p>	<p>HELLO! Spray Mop with 2 Mopping Pads 헬로! 스프레이 물걸레 청소기 + 패드 2장 \$19.99 BLUE /SET \$13.99</p>	<p>LG Elastine Intensive Damage Care Shampoo/Conditioner 엘지 엘라스틴 집중영양 샴푸/컨디셔너 \$8.99 680 ML /EA \$5.99</p>

종가집 JONGGA SURPRISE SUPER SALE 30% OFF
APR. 2ND - APR. 7TH, 2022
종가집 특별/할인

할인 아이템 한정 Discount applies to select items only

Available Only at Burlington Store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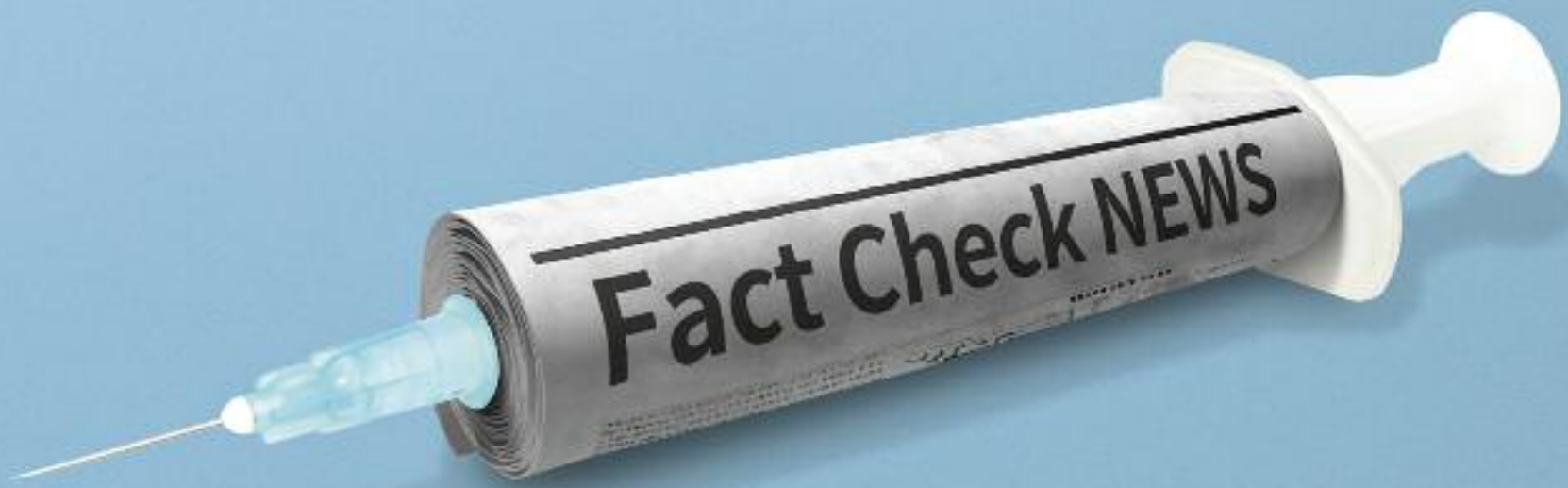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김유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용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보호 우수요율 지원방안
대상되었습니다.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abulry)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116Zd77>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5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ad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Pray for Ukraine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무릎꿇지 않겠습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Date: April 30, 2022 (Saturday) Time: 7 PM - 11PM

**V F W Function Hall
 190 Plain St. Lowell, MA 01852**

Contact : 978.828.5818 978.807.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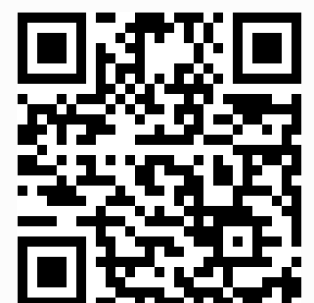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9) 재정교육(Financial Literacy)의 중요성

플로리다주 정부는 고등학생 정규과목으로 재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 (Florida just became the largest state to mandate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high school, CNBC, Mar. 23, 2022)이 최근 통과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선 매년 4월은 재정에 관심을 두는 달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금융 지식에 힘을 쓰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식투자, 채권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과 적용,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융자금, 학자금 투자와 융자, 은퇴 투자, 보험 등 필요한 재정 상식은 무수히 많다. 미국에 이민을 온 일 세대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만, 한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융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부모 역시 재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들 자신도 재정교육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재정교육 중요성의 한 예로 미국 자동차 5대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개인의 신용등급

에 따라 책정한다. 신용등급이 불량한 개인은 등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65% 더 낼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등이 전혀 없어도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두 배 이상 내는 경우도 있다. 집을 살 때 필요한 주택융자금 이자율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10,000이고 매달 외상 액수를 갚으면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신용회사는 카드 한도액과 쓴 빚을 함께 계산한다. 한도액 \$10,000에 대해서 \$1,000을 사용하면 10%이며 \$2,000을 사용하면 20%이다. 이것을 사용 비율(Utilization Ratio)이라고 하며 이 숫자가 적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신용등급 회사는 이 비율을 한 자리 숫자, 즉 1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의 하나이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때 대박 나는 종목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축을 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러나 \$100에서 \$100을 더 저축하면 100% 상승이다. 어떤 뛰어난 투자 방법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저축이 투자의 첫걸음이고 부를 축적하는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기간에 투자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한다. 생각한 대로 돈이 불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본전만 유지해도 다행이고 몸과 마음도 함께 상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준히 불어나게 하는 것이다.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난다. 10만 불 투자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런 투자 복리(Compound Interest)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

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주식 투자에 가장 치명적이다. 조급한 마음은 놀라운 주식시장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

지난 3년 2021년 27.9%, 2020년은 18.4%, 그리고 2019 투자는 31.5%라는 수익률이다. 대박을 기대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업인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이다. 지난 13년의 연평균은 16.03%이다. 이것은 10만 불 투자가 거의 70만 불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모든 재정 상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지, 투자를 가능한 왜 일찍 시작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재정 상식을 이해해야 한다. 재정교육은 자산 상속보다도 누구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4세 풍월주(風月主) 천광공(天光公)(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김천광이 14세의 나이로 화랑에 입문하자, 그를 보고 좋아하는 상랑 김양도는 그를 폐신嬖臣으로 삼아 마치 부부처럼 지냈다. 그리고 자주 천광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여기까지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서로 남색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런데 천광의 어머니인 천장낭주가 딸 천운과 함께 양도를 맞이하여 밤을 세워 이야기하며 날이 밝아오는 것도 모르고 즐기기를 수차례 하였고, 마침내 천운이 양도의 부인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양도는 천운과 상접하려고 천광의 집을 드나든 것 같다. 양도가 천장낭주의 허락을 받아 천운을 후처로 맞을 때 그는 이미 부인이 있었다. 양도의 부인은 보랑인데 그들은 이부동복의 남매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다지 깊지 않아 보였다. 그 무렵 양도는 많은 낭두들의 처와 딸을 취하였고, 보랑 또한 양도와 군관이 풍월주에 있을 당시 화주(와상선의 부인)로서 낭정을 전횡하면서 낭두찰의察義와 사통을 하기도 하였다. 어쩌든 양도는 당시 가장 아름다웠다는 여인으로 기록된 천운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매일 천광의 집을 드나든 것 같다(그는 보랑과 혼인할 당시부터 근친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의 어머니 양명공주는 신국神國 신라에

는 신국의 도도가 있다며 자신의 아들 양도와 딸 보랑을 서로 결혼시켰다. 보랑의 언니는 보라인데 김춘추의 부인이 되어 딸 고타소를 낳고 조졸하였다. 고타소는 김품석의 아내가 되어 642년 대야성 함락 때 죽임을 당했다). 양도가 천운을 후처로 들일 무렵에는 김군관이 풍월주로 있었다. 그래서 군관에게 천광을 부제로 삼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김양도는 천광에게 윤화尹華와 결혼하라고 명하여 천광과 윤화는 부부가 되었고, 천광이 24세 풍월주에 오르자 윤화는 화주가 되었다. 풍월주가 된 김천광은 김양도의 명으로 춘장을 부제로 삼았다. 춘장은 후일 25세 풍월주가 되었다.

17세 풍월주인 김염장의 부인은 하희이다. 그들은 아들 셋(윤장, 하장, 춘장)과 딸 둘(춘화, 윤화)을 낳았다. 하희의 부모는 하종(11세 풍월주)과 은륜공주이다. 은륜공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화랑세기의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양도공은 천장의 은혜를 갚고자 군관에게 천광공을 부제副弟로 삼도록 명했다. 천광공이 부제가 되었다. 양도공이 천광공에게 춘화春花의 누이 윤화尹華와 결혼하라고 명하여 공은 그녀를 아내로 삼았고 이에 이르러 윤화는 화주花主가 되었다. 처음에 윤장閔長의 아우 하장夏長이 공과 더불어 부제가 되려고

경쟁을 했으나 이기지 못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양도공이 천광공에게 명하여 하장의 아우인 춘장春長을 부제로 삼도록 했다. 춘장은 곧 윤화의 형이다. 윤화의 어머니 하희夏姬는 곧 하종공의 딸이다. 그 어머니 은륜공주銀輪公主는 사도태후의 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재私財가 있었다. 윤화가 그것을 얻어 천광공에게 시집을 갖기에, 곤란한 사람을 돕는 데 너그럽다.]

제24대 진흥왕과 사도왕후는 장남 동륜銅輪태자와 차남 금륜金輪(또는 사륜, 제25대 진지왕)과 삼남 구륜仇輪을 낳았다. 그리고 딸은 월륜月輪공주와 아양阿陽공주와 태양太陽공주와 은륜銀輪공주를 낳았다.

동륜은 만호(부모는 임종과 지소이다)를 부인으로 맞아 장남 백정(제26대 진평왕)과 백반(진정갈문왕)과 국반(진안갈문왕, 진덕여왕의 생부이다)을 두었다. 그리고 성명 미상의 아들(어머니는 개원공주)과 애송공주(어머니는 미실이다)와 윤실공주(어머니는 윤궁)를 두고 572년에 아버지의 후궁 보명궁을 월담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형의 비명횡사로 태자가 되어 나중에 진지왕이 된 금륜은 지도왕후와 아들 용수와 용춘을 낳았고(화랑세기에는 형제로 나온다), 후궁 도화부인에게서 비형랑鼻荆郎을 낳았다(삼국유사에 의

하면 죽은 후 혼령이 도화부인에게 나타나서 동침한 후 비형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용수/용춘과 비형을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쩌든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 의하면 진지왕은 579년에 폐위되어 죽었다. 삼남 구륜은 반야공주(부모는 진흥왕과 미실이다)를 부인으로 맞아 아들 수품을 낳았고, 또한 보화공주(부모는 진평왕과 미실이다)와는 아들 선품(21세 풍월주)을 낳았다.

장녀 월륜공주는 윤황(부모는 거칠부와 말보이다)과 결혼하였다. 차녀 아양공주는 김무력의 아내가 되어 아들 서현(김유신의 아버지)을 낳았다. 삼녀 태양공주는 동륜태자, 진지왕, 진평왕 외에도 여러 남자가 있었다. 진평왕의 아들들로 추측되는 태원과 호원을 낳았다. 막내 딸 은륜공주는 진지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방탕한 생활에 출궁되어, 어머니 사도태후가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의 단절을 염려하여 하종(부모는 세종과 미실이다)에게 혼인시켜서 아들 효종과 딸 하희와 월희를 낳았다. 바로 이 하희가 윤화의 어머니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넓은 자동차처럼 덜컹거리는 스토리...영화 '스텔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잘빠진 외관과 위압적인 엔진소리, 상쾌한 질주감과 내 집 같은 승차감. 카 체이싱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대개 이런 모습이다.

그러나 영화 '스텔라'에서 영배(손호준 분)가 서 사장(허성태)의 추적을 피해 몰고 다니는 차는 영판판이다.

최대 속력 50km/h. 그마저도 오르막길에선 30km/h가 채 나오지 않는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을 열려면 망가진 손잡이를 힘겹게 돌려야 한다. MZ세대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자동차 1987년식 스텔라다.

'스텔라'는 영배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스텔라를 타고 잃어

버린 슈퍼카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뽕밭의 기봉이'(2006), '형'(2016) 등을 선보인 권수경 감독이 연출을 맡아 고물차인 스텔라를 자동차 추격전 선두에 서게 하는 신선한 시도를 했다.

영배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 대신 차량을 압류해오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채무자가 아무리 매달려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차를 빼앗던 그는 절친한 친구 동식(이규형)이 3억 원짜리 슈퍼카를 빼돌리는 바람에 차 주인 서 사장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앞선 데 뺏친 격으로 평생 등지고 살았던 아버지(전노민)의 부고

를 듣고 고향을 찾지만, 서 사장 일당이 찾아와 영배를 뒤야세운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서 사장 때문에 영배는 결국 도망을 친다. 택시 운전사였던 아버지가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해온 스텔라를 탄 채로.

서 사장은 영배를 쫓고, 영배는 동식을 쫓으며 추격전이 이어진다. 영배는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스텔라로 고급 세단들의 추적을 피해 가며 슈퍼카를 찾을 수 있을까.

고물차의 느린 추격전이라는 소재는 새롭게 다가오지만, '장비밭'을 내세운 시원스러운 자동차 추격전을 기대한 관객이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스텔라 하나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고급 자동차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도망을 가고, 잡히고, 기가 막힌 우연이나 운으로 탈출하고, 다시 도망을 가는 과정이 반복된다.

스토리는 넓은 차처럼 덜컹거리며 가까스로 나아간다. 갑작스럽게 '아버지 서사'가 끼어들면서 장



르는 한순간에 신과극으로 바뀌는 가 하면 범죄·액션물이 되기도 한다. 일부 코믹한 대사가 웃음을 주기는 하지만, '코미디' 장르를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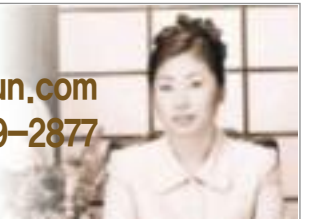
영화치고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다음 달 6일 개봉. 상영시간 98분. 15세 관람가.



4월 3일 - 4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행운이 따르고</p> <p>●운수: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앞던 이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해집니다. ●금전: 기쁨과 행운이 따르고 생활에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진 빚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정: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6, 9일 길일, 4, 8일 주의.</p>	<p>소띠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p> <p>●운수: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 가벼이 행동하면 사람도 재물도 잃게 됩니다. 진중해야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그동안 애써 자제해오던 자신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숨겨오던 감정도 듣기 쉽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6일 길일, 3, 9일 주의.</p>	<p>범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p> <p>●운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획기적이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실력을 인정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전: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납니다. 이득을 보려면 바쁘게 다녀야 할 것입니다. ●애정: 때로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애정을 전해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p>
<p>토끼띠 새로운 인연을 맺어야</p> <p>●운수: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짜증을 내거나 초조해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의외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애정: 웬지 모르게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어수선하군요. 지나간 것에 대한 추억은 접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7일 길일, 5, 9일 주의.</p>	<p>용띠 매사 주도면밀하게</p> <p>●운수: 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사 주도면밀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금전: 돈주머니에 돈이 고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많으니 돈의 움직임이 늘어납니다. ●애정: 언뜻 보면 부족하고 밀리는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은 그 어느 자로도 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p>	<p>뱀띠 소망했던 일을 이루고</p> <p>●운수: 목적인 일을 이루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잘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전: 소망했던 일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좋은 편이니 꼭 필요한 돈이 생깁니다. ●애정: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상대가 너그럽게 이해하여 줄 것이니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p>
<p>말띠 굳은 마음으로 한 길을 가야</p> <p>●운수: 기쁘고 고마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굳은 마음으로 한 길을 가면 결국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금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흔쾌히 도와주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애정: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덕이 따라주니 주변의 도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p>	<p>양띠 마음을 밝게</p> <p>●운수: 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짜증을 내면 그 사람 주변의 공기마저 물들여서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짜증스러워 집니다. ●금전: 모든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합니다. 급히 서둘다가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정: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헤어짐이 있으니 허전한 마음이 들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p>원숭이띠 기쁨이 따르고</p> <p>●운수: 작은 일부터 풀려나가면서 점차 많은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 면으로 기쁨이 따르겠습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 조건이 생기거나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소득이 있겠습니다. ●애정: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p>닭띠 티끌 모아 태산이니</p> <p>●운수: 별다른 욕심을 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금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출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애정: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권태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색다른 변화나 깜짝 이벤트로 상대에게 기쁨을 주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p>	<p>개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p> <p>●운수: 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던 병이 발견될 수 있으니 건강 진단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장기이상이나 혈압 증세에 대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금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항상 자신이 처한 위치와 부수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8일 길일, 6, 9일 주의.</p>	<p>돼지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p> <p>●운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금전: 현명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는 태도는 불신과 손해를 부를 뿐입니다. ●애정: 최대한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혀 악의가 없고 무심코 한 거짓말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2/11
캐쉬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사내맞선'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2주 연속 1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SBS 월화드라마 '사내맞선'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2주 연속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다.

30일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공개하는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사내맞선'은 3월 넷째 주(21~27일) 시청 시간 3천940만 시간을 기록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첫 방송된 '사내맞선'은 TV 방영 직후 넷플릭스에 공개되는데, 3월 둘째 주(7~13일)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6위를 기록했고 셋째 주(14~20일)에는 1위로 올라섰다.

안효섭·김세정 주연의 '사내맞선'은 평범한 직장인 신하리가 친구를 대신해 나간 맞선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 대표인 재벌 3세 강태무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3월 둘째 주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 시간 순위에는 '사내맞선'을 포함해 '스물다섯 스물하나'(2위·2천415만 시간

), '기상청 사람들'(4위·1천448만 시간), '소년심판'(6위·1천251만 시간), '지금 우리 학교는'(7위·1천138만 시간

), '서른, 아홉'(9위·1천43만 시간) 등 한국 작품 6개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aeran@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스트레이키즈, 미국 빌보드 200 정상...BTS·슈퍼엠 이어 3번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르며 K팝 역사에 또 한번 기록을 썼다.

29일 빌보드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미니음반 '오디너리'(ODDINARY)는 4월 2일자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앨범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 앨범 순위를 낸다.

K팝 아티스트가 이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BTS), 슈퍼엠(SuperM)에 이어 세 번째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8일 발표한 이 음반으로 데뷔 4년 만에 '빌보드 200' 차트에 처음 입성하면서 바로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빌보드 200' 1위 기록은 K팝 단일 아티스트로는 두 번째"라며 "'차세대 K팝 대표 주자'로서 확고한 존재감과 입지를 다



시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오디너리'는 '이상한'이라는 의미의 '오드'(Odd)와 '평범한'이라는 뜻의 '오디너리'(Ordinary)를 합친 말로, 평범한 우리도 모두 이상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미니 음반이다.

이 음반은 최근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며 판매량에서부터 성과를 냈다.

빌보드가 음악 판매 데이터 제공사 'MRC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디너리' 음반은 발매 이후 한 주간 10만3천 장이 팔려 올해 발매된 음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실제로 이 음반은 공식 발매 전 선주문 수량이 130만 장 이상에 달했고, 발매 첫 주에는 85만3천여 장(한터차트 기준) 팔렸다.

또 아이튠즈의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미국·호주·일본 등 해외 56개 지역 및 국가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타이틀곡 '마니아'(MANIAC) 역시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룹 내 프로듀싱팀인 '브라차'(BRACHA·방찬, 창빈, 한)와 작곡가 베르사체가 협업한 이 곡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98위에 오르며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K팝 그룹 사상 세 번째로 앨범 전곡을 차트에 올리기도 했다.

2018년 데뷔한 스트레이 키즈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색이 뚜렷한 음악으로 주목받아왔다.

빌보드가 선정한 '2018년 주

목할 K팝 아티스트 톱(TOP) 5'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은 지난해 6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믹스테이프 : 애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선보인 정규 2집 '노이지'(NOEASY)는 빌보드 세 부 차트에서 잇달아 성적을 냈다.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웠던 이 음반은 빌보드 히트커스 앨범 4위, 월드 앨범 5위 등을 차지했으며 타이틀곡 '소리꾼'이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다음 달 29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고베·도쿄, 미국 시카고·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LA) 등 총 10개 도시에서 16차례 공연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yes@yna.co.kr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상처'가 사명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헤미야 1장 4절)"

'상처'가 사명이다. 눈물과 아픔과 상처는 사명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상처에는 눈물이 있다. 그 상처의 눈물은 하나님이 꼭 사용하신다. 그 눈물은 회복하는 도구로 쓰시는 까닭이다. 남이 겪어 보지 않은 '내 일'에 대해 어찌 알 수 있겠으며, 나 또한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쓰러운 마음으로는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28일(월) 남편의 기일 1주기를 보냈다. 한 열흘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기도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세 아이들과 막내 며느리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아파져 왔기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한 달여 전부터 교회 담임 목사님께 1주기 '추도 예배'를 위해 부탁을 드렸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30여 년 함께 오래도록 지내오며 마음을 나누던

몇 분들만 초대를 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초를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촛불을 켜 함께 놓고 기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버거운 일이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리란 그 믿음으로 오늘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힘듦을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다. 연애를 포함 35여 년 시간을 함께했던 남편과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들을 어찌 가슴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 예고도 없이 성난 파도처럼 그리움은 한 차례씩 내 가슴을 후벼고 훑으며 지나간다. 누구나 어느 때인가는 단 한 번은 서로 겪어야 할 일들이지만, 내가 먼저 겪었을 뿐이다.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 가운데 똑같이 약속된 일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웬지 내일 같지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던가.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그 한 사람의 삶을 많이 바꿔놓기도 한다. 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 시간을 아끼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남이 겪지 않은 일을 겪는 일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 버거운 일은 나의 앞으로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 나를 더욱더 든든하고 힘있게 만들어 준다. 그 경험으로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힐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기면 해안이 열리니 세상을 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 많이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깊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감사했던 시

간이다. 또한 그 빈자리를 마무리 못 했던 대학원 상담학 공부를 다시 2월 말부터 준비해 3월 초부터 시작을 했다. 시간이 반이 라더니 벌써 한 달을 보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다. 대학원 공부를 마치면 상담학 박사과정도 준비하려고 한다. 세상 나이 60이 다 되어 시작하는 공부니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까지 마무리 공부 잘하길 기도한다.

특별한 타 주에 불일이 있지 않다면 남편의 묘지에 매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온다. 나 잘살고 있지? 이렇게 남편에게 물으며 종얼거리다 돌아오곤 한다. 걸어서 찾아가는 길은 남편 만날 생각에 좋고, 자동차로 가는 날에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오곤 한다. 가끔, 아주 가끔은 '남편의 수다'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남들 앞에서는 무뚝뚝한 사람 같지만, 매일 내게 끊임없는 수다로 있던 정 깊고, 속 깊은 남편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편안한 남편이고, 참 좋은 친구였다. 늘 지켜봐 주길, 열심히 살게!!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광화문 글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광화문 글판이 바뀌었다. 글귀가 그럴듯 하다. 시인 김사인의 시인데, 공부란다.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같았 지고 새움 돌 듯 누군가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셨기도 하는 일 (김사인, 공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공부라 했다. 그걸 표현했다 던가. 묵묵히 지켜보는 일도 결코 빠질 수 없다고도 했다.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의 따뜻한 시선이라는 거다. 아 니나 다를까. 광화문 글판 배경 그림엔 노란색 글씨가 눈에 띄인다. 새로운 계절이고 따뜻함을 나타내 고자 했단다. 따뜻함은 온기溫氣인데, 시선 역시 따뜻함과 차가움의 차이가 확연하다.

얼마전 한국신문 기사중 하나다 . 대통령 당선자가 식사하는 사진도 같이 실렸다. 설명이 곁들여 졌는데, 전말은 이러하다. 음식점 주인은 산불진화에 노력했던 소방관들에게 식사대접을 했단다. 감사의 뜻을 전할 겸 당선자가 일부러 식당을 방문했고 짬뽕으로 식사했다는 거다.

신문 기사는 이어진다.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가게' . 희생이란 말은 과하다 싶

다만, 봉사라 해야 맞지 않나 싶다 . 그 식당 배달 어플리케이션엔 "산불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재민 분들께 무료 식사 보내드린다" 라고 적혀 있었던다.

배달요청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돈줄이 날다고도 했다. 돈줄은 돈과 혼쫌의 합성어이다. 음식을 주문한 고객은 음식은 받지 않고 요금만 보냈다 했다. 사연을 들은 분들의 기부행렬이라고도 했던가 . 동네분들도 역시 고마워 동참했

다고 전해진다. 아 따뜻함이어. 매운 짬뽕보다 더 뜨거운 마음씀이다. 역시 배달의 민족 되시겠는데, 사는 일이 곧 공부일터.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고 공부할 만한 삶이다. 청와대는 광화문과 가깝다. 청와대가 옮겨 간다는데, 그때까지도 광화문 글판은 건재할 겐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21)



2022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하기 정치 인턴십 공모

시민협회가 보스톤 뉴잉글랜드 지역 차세대 한인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위한 <2022년 하기-정치 인턴십>을 공모합니다. 선발된 인턴은 보스톤시장 미셸 우, 주-상원의원 소냐 장-디애즈, 주-하원위원 태키 찬, 우스터 시의원 두 뉴엔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선발된 대학생 인턴에게는 시민협회가 \$2,000, 그리고 고등학생 \$500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인턴십 시작과 종료일은 해당 정치인 사무실과 논의하여 각 인턴의 개인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인턴십종료후에 각 인턴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인턴십 에세이가 시민협회 디지털저널에 게재되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 지원방법과 절차:

1) 시민협회 웹사이트 www.kacl-ne.org 를 통하여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자정) 까지 신청

2) 선발절차: Week of May 1, 2022: 지원자에게 인터뷰 통보

Week of May 8, 2022: 선발된 지원자에게 *합격통보

[합격통보후, 선발된 예비인턴은 해당-정치인 사무실에서 정한 최종절차를 따라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Saturday, May 21, 2022: <KACL22 정치인턴 모금만찬> 당일에 장학금 수여

• 지원자격:

- 1) 한인계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2) 뉴잉글랜드 거주 혹은 뉴잉글랜드 소재 대학교(혹은 고등학교) 재학생
- 3) 학교평점이 3.0 (4.0기준) 이상인자
- 4) 성적 증명서
- 5) 리더십과 탁월한 의사소통을 증빙하는 추천서

시민협회 정치 인턴십 신청과 인턴십에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민협회 부회장 허 훈 (HOON HEO)

전화번호: (413) 204-9569

시민협회 사무총장 소피 박 (SOPHIE PARK)

이메일: newenglandkacl@gmail.com

www.kacl-ne.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아파요” 하지정맥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일반외과의 도움을 받아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커지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 겨울철에 긴 부츠나 다리에 딱 달라붙는 기모 레깅스로 추위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았다. 상체는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 장갑 등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하체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부츠와 딱 끼는 기모 레깅스로 추위를 막는다. 하지만 이런 의상들이 여성들의 다리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높은 굽의 하이힐이나 긴 부츠, 레깅스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다리에 있는 정맥이 압박을 받게 된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이 오랜 압박으로 손상될 경우 혈액이 심장 반대 방향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맥이 압박을 받아 늘어나

게 되고 다리 피부에 꼬불꼬불한 모습으로 노출되는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게 된다.

하지정맥류의 발병 빈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9만7,986명이었던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2019년 31만3,681명으로 5년 사이에 58.4%나 늘어났다. 특히 하지정맥류는 여성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2019년 기준 하지정맥류를 앓았던 남성 환자는 9만7,283명이었던 것에 반해 여성 환자는 21만6,398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요인과 함께 비만, 노화, 호르몬 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또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리 정맥의 탄력이 약해져 하지정맥류 발병에 유의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곤 하는데 이는 자궁이 커지면서 다리 정맥을 압박해 발병하는 경우다. 대부분 출산 후 상태가 호전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병원에 내원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 피부에 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리의 피로감, सूष, 저림 등의 증상도 동반된다. 특히 근육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는 이 같은 증상들이 더욱 심해져 잠을 설칠 수도 있다.

하지정맥류는 병의 경중을 파악한 뒤 치료법을 결정한다.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의류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정맥에 약물을 주입해 혈액의 역류를 막는 방법이 있다. 정맥이 심하게 늘어났다면 정맥을 2mm 정도 절개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세란병원 일반외과에서는 “일교차가 크고 찬 바람이 불 때는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혈관에 압박을 가하는 심하게 끼는 바지나 긴 부츠 등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기 전 다리 밑에 베개를 놓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려두고 자는 게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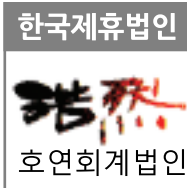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장시간 서 있는 경우가 많다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리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정맥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 | | | |
|--------------------------|---------------------|----------------|---------------|
| 눈 꺼풀 + 눈 밑 처짐 | 360 만원 | 콧대 + 코끝 | 350 만원 |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 700 만원 | 지방흡입(복부) | 500 만원 |
| 가슴 (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 600~1,000 만원 | | |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하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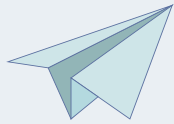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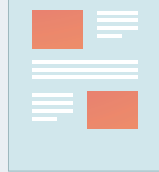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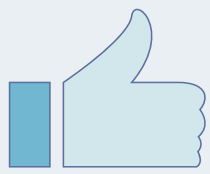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